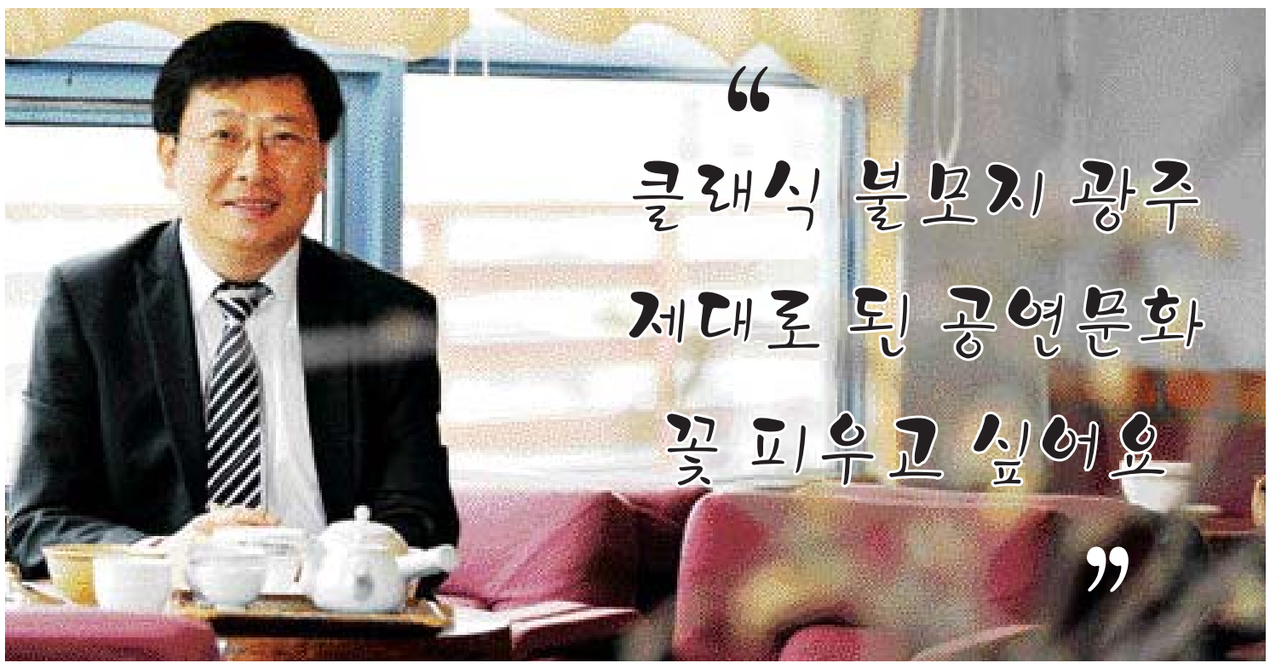



클래식 공연 기획자가 거의 없는 광주에서 정상급 연주자들을 초청, '광주국제음악제'를 꾸리는 플루티스트 백홍승씨의 행보는 단연 돋보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4월 '광주국제음악제' 이끄는 플루티스트 백 홍 승 씨

##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 공연
## 재원 마련·연주자 섭외
## 광주 대표 음악상품 만들것

2회째를 맞는 광주국제음악제(4월 11일~13일 광주문예회관)는 시비나 국비 지원 없이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행사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플루티스트 필립 피에를로, 플루트오케스트라 '우미부에노카이' 등 정상급 아티스트들은 광주에서 만나기 어려운 연주자들이다.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와 함께 이번 음악제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는 예술감독 백홍승(43)씨. 공연 기획의 불모지, 특히 클래식 공연 기획자를 찾아보기 힘든 지역에서 재원 마련부터 연주자 섭외, 프로그램 구성 등 모든 것을 도맡아 하는 백씨의 행보는 단연 눈에 띈다.

"민간 단체가 이런 규모의 행사를 진행한다는 게 벅차긴 해요. 하지만 광주를 대표할 만한 클래식 음악제를 만들고 싶었던 건 제가 오래전부터 꿈꿔온 일이예요. 지역에서 열리지만 연주 퀄리티면에서는 어디에도 뒤지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요. 이제 출발선에 섰으니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죠."

조선대 음악교육과 출신으로 플루티스트로도 활동중인 백씨가 공연 기획에 관심을 갖게 된 건 1997년부터였다. 이론과 경험을 갖춘 '프로 기획자'가 되고 싶었던 백씨는 음악 분야만 알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전남대 법학과에 편입했다. 계약, 세금 등 공연 기획과 관련된 '법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였다. 이어 2009년에는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학과를 졸업, 체계적인 공부를 마쳤다.

인적 네트워킹을 만드는 데도 많은 '시간'을 쏟았다. 백씨는 '내 인생의 인연'으로 플루티스트 우메즈 마사요시와 오하다 요코를 꼽았다. 유창한 일본어 실력을 자랑하는 백씨는 이들을 통해 각국의 연주자들과 인연을 이어갈 수 있었고, 이번 음악제 역시 이런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2006년에는 요미우리교향악단의 공연을 기획, 일본 신문에도 소개됐었다.

현재 도쿄프라임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백씨는 연주자 섭외, 공연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다. 철저한 신용사회인데다 각 직종이 전문화·세분화돼 있고, 주먹구구식 운영을 용납치 않는 일본에서의 활동은 힘들기는 하지만 그에게 많은 자양분을 제공해 주고 있다.

"클래식 공연 기획자의 꿈은 훌륭한 연주자들의 공연을 '함께' 즐기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관객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연주회를 많이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체계적인 기획을 통해 클래식 공연 관객을 발굴하는 것도 제가 해야할 일이구요."

백씨의 머리 속에는 기획 아이템이 무궁무진하다. 최근 클래식 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중국인들을 겨냥한 음악 관광상품 개발과 콩쿠르 등을 통해 유망한 아티스트를 발굴 등이 대표적이다. 백씨의 꿈은 남들 눈엔 다소 '무모한 도전'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디긴할지라도, 결코 중단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꿈을 향해 또 다시 한걸음을 옮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매천 황현의 삶과 정신 소설로 부활

## 순국 100주년 맞아 '…조선의 마지막' '매천야록' 등 잇단 출간

경술국치 100년, 매천 황현(1855~1910년) 선생의 순국 100년을 맞아 조선의 마지막 선비라 불리는 그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역사소설 두 권이 최근 동시에 출간됐다. '매천 황현 1, 2'(문학들 펴냄)와 '매천야록'(한누리미디어 펴냄).

매천 황현은 1855년 광양에서 태어나 지리산자락인 구례를 오가며 성장했으며 이건창, 김택영 등과 함께 '구한말 삼재(三才)'로 불린 인물로 조선말기 정치와 사회상에 대한 많은 저술을 남겼다. 특히 1910년 8월 일제에 강제로 나라를 빼앗기자 통분해 절명시 4수를 남기고 자결했다.

'검은 노을', '운주' 등을 낸 중견 소설가 박혜강씨가 철저한 현장조사와 사료를 바탕으로 펴낸 '매천 황현'은 특이한 구성의 역사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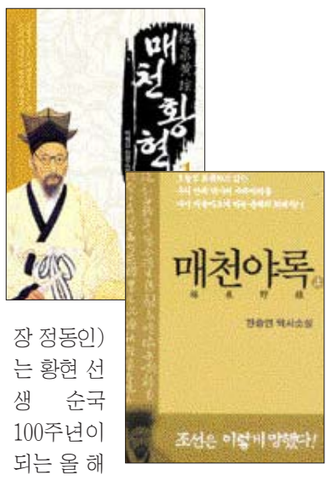
우선, 황현의 생애를 '백운산권'과 '지리산권'으로 나누고 각 권마다 현장 답사를 통한 르포르타지(보고문학)와 역사소설 일반형식을 결합시켰다.

또 황현의 대표적인 저서인 '매천야록'과 '오하기문' 그외 시 등을 인용하고 선생의 행적을 세밀하게 묘사해 한 권의 역사책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구례 출신 작가 한승연씨가 최근 펴낸 역사소설 '매천야록'도 주목된다.

소설은 황현 선생이 남긴 작품과 매천 연구가들의 기록을 토대로하고 소설적인 요소를 가미해 흥미와 교훈을 두루 갖춘 역사소설이다.

한승연씨는 "황현 선생 순국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각별한 각오로 쓴 작품"이라며 "하권은 5월 말 출간을 예정으로 현재 집필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매천황현선생기념사업회(회장 정동인)는 황현 선생 순국 100주년이 되는 올 해 순국기념행사는 물론 문학작품지원사업, 제2회 매천 황현 문화제, 매천 황현 관련 저술 수집사업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 하늘을 나는 돼지의 모습은 어떨까

## 임병중 전…화순전대병원

고대벽화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독특한 판화를 선보이고 있는 임병중씨가 오는 21일까지 화순전남대병원 여미아트홀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슈퍼맨 옷을 입은 돼지 캐릭터를 만들어내 과거와 현재의 이미지를 혼합시킨 작품을 선보인다.

분홍색과 노란색, 파란색을 즐겨 사용해 화사한 느낌을 주고, 꽃과 별을 배경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돼지 캐릭터의 모습에서는 인간의 순수함을 묻어 있다.

또 발랄한 돼지의 모습과 전통기법으로 그려진 호랑이의 모습 등이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임씨는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뒤 중국 베이징, 서울, 부산 등지를 오가며 전시회를 했고 이스탄불국제판화비엔날레 등에 출품했다. 현재 광주현대판화가협회, 에뽀끄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1-375-3006.

'memory'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클래식으로 듣는 '봄이 오는 소리'

## 5일 밤 나주문예회관서
## 무지크바움 신춘음악회

나주 신춘음악회 '봄이 오는 소리'가 오는 5일 오후 7시30분 나주문예회관에서 열린다.

나주시가 주최하고 지역에서 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는 무지크 바움이 주관하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전국에서 활동중인 연주자들을 초청,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다.

연주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봄', 모차르트의 호른 5중주곡, 베버의 '클라리넷 5중주', 들리브의 오페라 '라크메' 중 '꽃의 이중창', 한국 가곡 '진달래꽃', '강 건너 봄이 오듯이' 등이다.

출연자는 바이올린의 현순이(광주대 교수) 송원진(광주대 강사), 비올라 임요섭(서울시향 단원) 김준성(숭실콘서바토리 강사), 첼로 김창헌(서울필하모닉 상임수석), 클라리넷 박인수, 호른 김오진(천안시향 부수석)씨 등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남도의 色 담은 어머니의 정원

## 자미갤러리 5~17일 정경래 전

나무판 위에 화사한 꽃잎을 그려넣고 있는 정경래씨가 5~17일 광주 자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어머니의 정원'을 주제로 남도의 풍광과 화사한 빛깔의 꽃잎을 형상화한 작품 을 선보인다.

'봄의 길목에서'

오래된 가구에 큰 꽃잎을 그려 넣은 뒤 꽃잎에 허리가 굽은 할머니의 모습을 살짝 끼워넣어 아기자기한 묘미를 살렸다. 또 산길과 염전 등을 형상화한 작품들도 잔잔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한 정씨는 소나무회전, 월드컵 기념 한일교류전, 운주사 천불천탑전 등의 전시에 참여했다. 문의 062-523-091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